

21세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도전



朴亨鐘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최

근 IMF한파로 인하여 온 국민이 뜻하지 않았던 경제적 파탄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여기에 겹쳐서 전국을 휩쓸고 간 수재의 피해로 일부 국민은 순식간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에는 보다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 건설을 꿈꾸며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위기에 당면할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일어섰던 과거의 역사와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기필코 잘 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의심치 않는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는 국가경제가 되살아나야 한다. 국가경제의 회복은 결국 국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의식주에 불편이 없어야 함은 기본이다. 최근에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적 위험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요인들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치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관심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바로 건강문제이다. 아무리 모든 조건이 완비되더라도 우리들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이 훼손될 때 행복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공포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는 국가경제가 되살아나야 한다.
 국가경제의 회복은 결국 국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하였으며, 기존의 보건소법을 전면 개편하여 지역보건법을 새로 제정·시행하는 등 보건정책의 초점을 국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두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 건강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21세기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과제를 수행하는 데 가장 시기적절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생각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국민들의 강력한 호응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는 WHO의 주도아래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즉, 1986년 11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제1차 국제회의가 열린데 이어 2년후인 1988년 4월에는 호주의 '아델레이드'에서 제2차 회의가, 1991년 6월에는 스웨덴의 '썬즈볼'에서 제3차 회의가, 그리고 1997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제4차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 결과 내려진 결론들은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에게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회의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21세기에 진입하는 우리 나라가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현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로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21세기에는 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일에 국가의 총력을 집중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경제개발 자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로,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생활 실천운동에 대한 국민 모두의 공감과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생활 실천운동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범국민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국의 언론, 시민단체, 교육계, 보건의료계 등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요망된다.

셋째로,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가진다. 따라서 이들을 올바르게 계몽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홍보와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이 요구된다.

넷째로,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이나 지방에서의 국민건강증진사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및 인력의 확보와 사업조직의 확대 강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위에 지적한 정책과제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최근 정부가 선포한 '제2의 건국'의 기치아래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